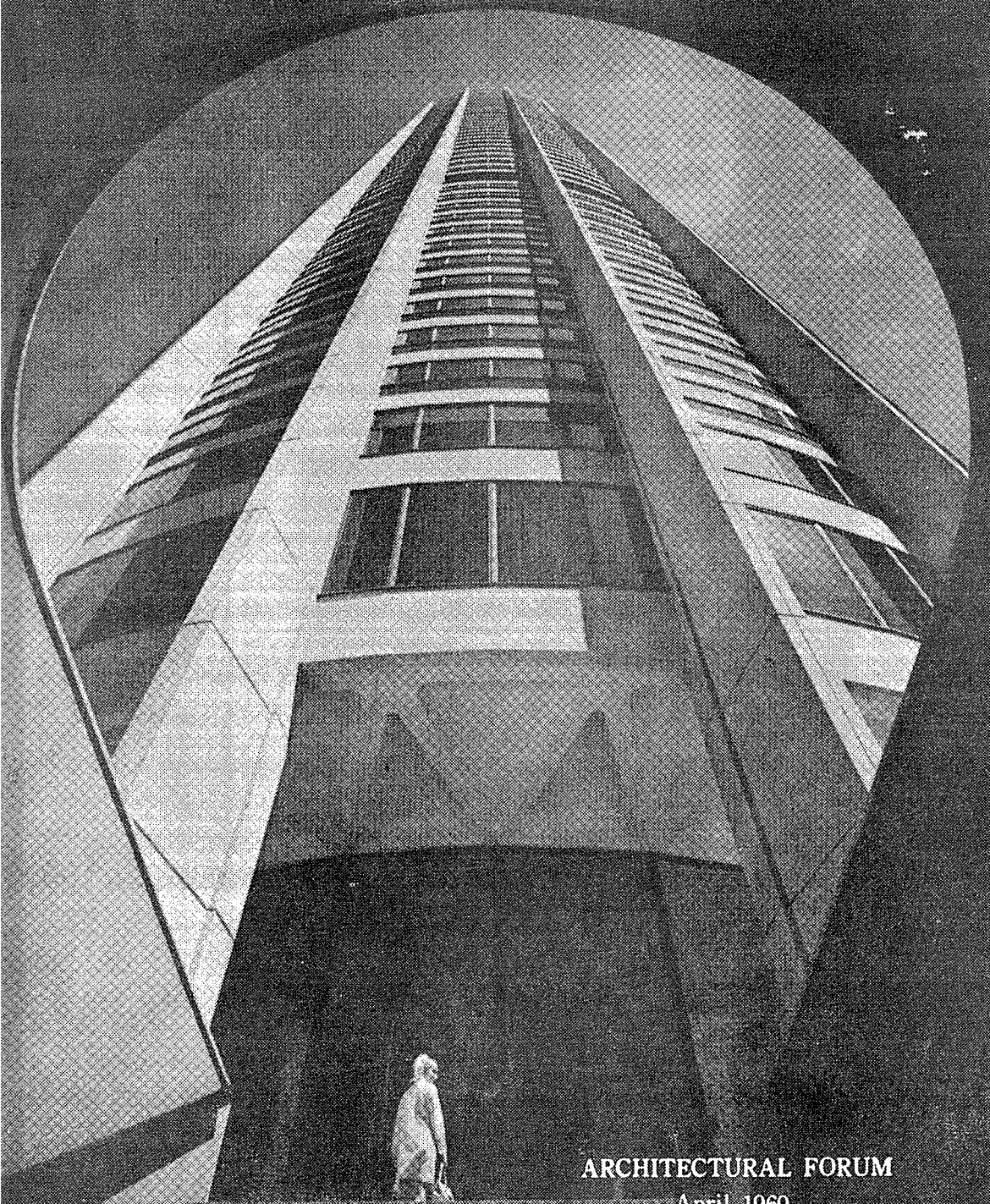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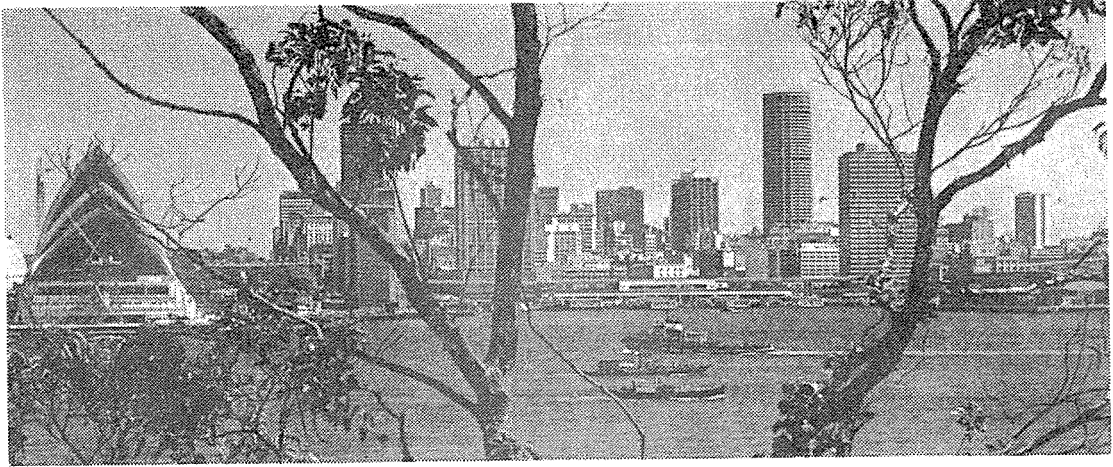
# 오스트레리아 광장 재개발



ARCHITECTURAL FORUM

April 1969

번역 윤 정 섭



다음에 소개하는 창의적인 건축양식 및 구조형식과 도시설계상의 특출난 작품은 호주 시드니 도심부 재개발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글은 Forum의 기고자의 한 사람인 호주 건축가 Robin Boyd에 의한 것으로 건축가는 호주의 Harry Seidler이다.

필자도 1966년 공사도중 이곳을 여러번 가본 일이 있다. (1966년 시드니에 갔을 때)

첫째 질문은 왜 완전한 원형인 것이 스퀘어(광장이라는 뜻이나, 원래는 정방형이라는 뜻)라고 불리어져야 하는가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스트레리아 광장”이란 이름은 30개 이상의 자기 다른 대지를 종합시킨 도시 재개발이라는 뜻이며, 시드니시의 가장 번잡한 부분에서 약 1.5에이커의 독립된 부력으로 여러 골목길 까지 합쳐 재개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장방형 부력이 대중 집합광장으로 보존되어 왔다. 높은 원형건물은 이 위에 세워진 여러가지 요소들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뿐더러 이 원형건물은 종합개발된 건물들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공간 즉 광장은 그 사회적인 맥동이며 따라서 첫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개방된 공간은 결코 공원용지는 아닌 것이다. 광장은 그 밑에 3층으로 된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광장 중앙에서 층높이의 차이가 12취이트 차이 나겠끔 계획되었다. 낮은 높이의 광장이 높은 높이의 광장으로 흘러 가는데 그곳에 쇼핑·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았다. 원형의 타워 건물은 높은 광장 위에 솟아 있고 또 13층의 장방



형 사무실 건물이 낮은 쪽 광장 끝을 차지하여 서 있다.

광장 위에는 생일 때 케이크형 혹은 결혼식 케이크형의 인공분수를 놓음으로서 자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뿐더러 다섯개의 식수장(植樹場)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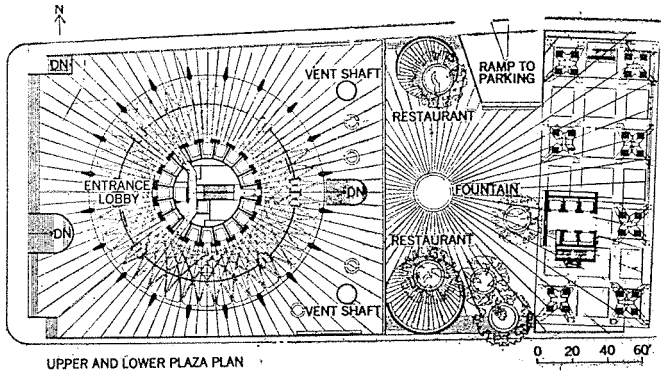
간단히 말해서 이 공개광장은 경제적으로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겠끔 집합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개방되어 소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은 주위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키는 가장 유효한 도심 뿌력이다. 따라서 놀라운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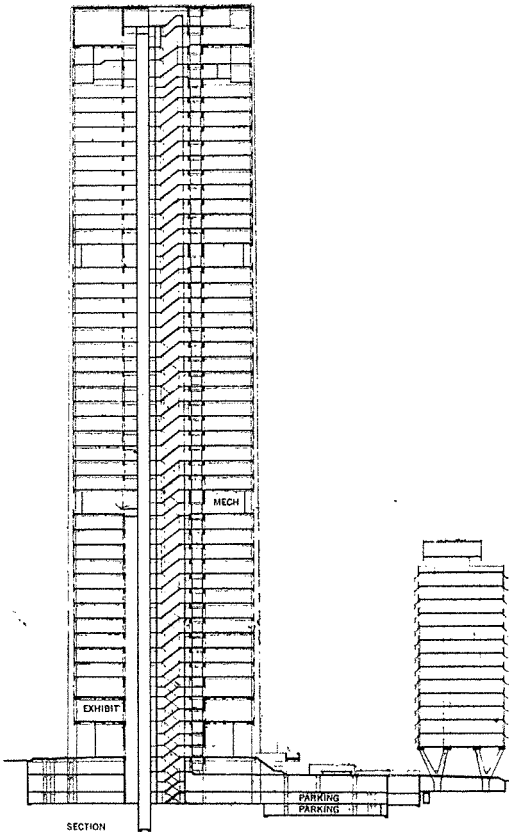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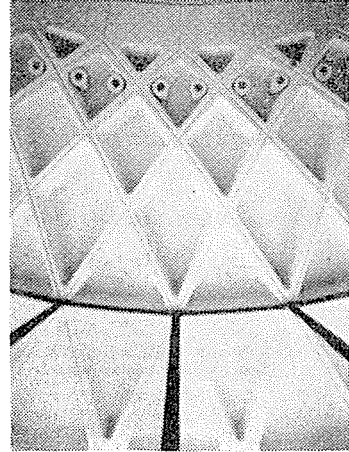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옥외의 카페의 자리는 차 있으며, 특히 점심 때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것은 따뜻한 인간척도의 공간인데, 그 이유는 결코 건물이나 광장에 쓴 자료의 따뜻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광장 자체가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 건축자료상으로는 따뜻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자재면에서 볼 때는 냉혹하도록 차가운 감을 주며, 건축의 상세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근엄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작가인 Harry Seidler는 현대건축의 주류상의 전통에서 작품활동용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타워와 맞서 있는 13층 건물의 밑은 외부공간을 그대로 유입하기 위하여 강력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층부에서 내리온 기둥을 나무가지 모형으로 4개 기둥을 한 기둥



UPPER AND LOWER PLAZA PLAN



SECTION

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확실히 이런 구조로서 수십개의 수직 기둥은 정리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너무 큰 가지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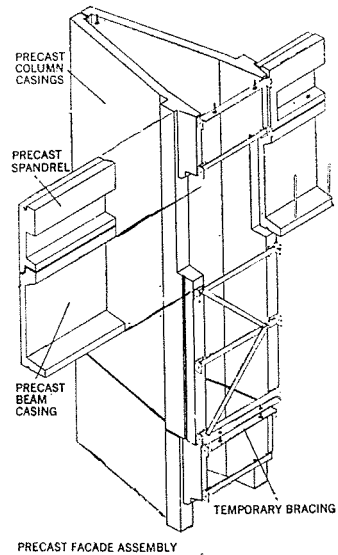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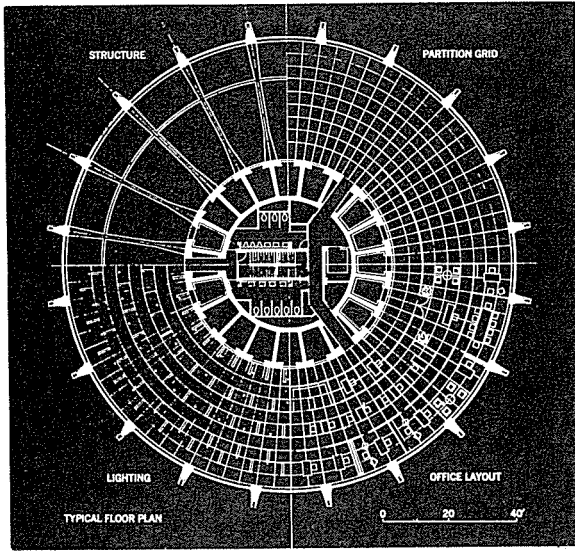
어떻든 이 건물은 다음 거대한 원형건물들의 서곡에 불과하니, 당신이 이들 나무가지형 기둥을 지나 낮은편의 광장으로 들어섬으로서 밀로로부터 차차 원형건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원형 타워는 그렇다고 유행형의 건물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7,8년 전 이것이 설계되었을 당시에는 이 건물은 훨씬 유행성을 띄우고 있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원형 정방형 등 기타 기하학상으로 원형(原型)에 속하는 평면을 가진 건물이란 아직도 대단한 모험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일단 착공된 후 빠른 속도로 공기가 단축되었는데, 각층이 조립되어 올라 감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 층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하였는데, 이러한 고층건물에 쓰이는 철골조가 아니 쓰였던 것이다. 즉 P.C.로 되어 있는 바, 그 개요는 별도 스케치와 같다.

그러나 이와같이 공사가 진척되기 전에는 토지의 배수와 인접지와의 인동거리 상으로 여러번 승강이 벌어졌었다.

이 당시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였으나, 그후 캐나다 몬트리올에 세워진 Victoria광장 건물에 뒤져서 준공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 설계가 몇년 동안 하나의 아이디어로 남았으며 마침내 건축작품의 유행이 돌출된 기둥형식에 의해서 짜여지게 되는 사변방향의 힘을 견디겠끔 변형되기까지 새로운 구조시대로 접어 들게 되었다.

오스트레리아 광장의 타워 건물은 단순히 원형인 동시에 특수하게 점잖고도 부드러운 것이다. 즉 이 건물은 과격하게 대담하려 하지 않았고, 이 점이 이 건물



을 새롭게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 건물은 순간적인 흥분으로서 주의를 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명백한 단순성 때문에 주의를 끌고 있다.

이 건물은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이며, 건축상세면에서도 미흡하거나 과도하게 잘지 않고, 따라서 어떤 거만스러운 거저장스러운 것이나, 맥 빠진 우아성도 풍기고 있지 않다. 물론 당신은 어떤 예술작품을 대할 때도 속단하면 안되드시 거기 쓰여진 기술을 인식하면 아니되고, 당신이 전문적으로 그 속에 관여하였을 때에만 판단이 가능하다.

이 건물의 고층부분의 하중을 전달하여야 할 저층부의 두층의 바닥구조들은 이태리의 구조학자 Pier Luigi Newi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그는 처마 끝에서 그의 독특한 곡선형이고, 교차되는 뼈대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35자 스팬을 가진 바닥 보로서는 물론 가장 단순한 해결안은 아니될지 모르나, 원형건물에 어울리는 구조방식이다.

외부에 나타난 지느러미 모양의 기둥들은 이들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장 합리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하중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결코 과도히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 비율은 50층에 대하여 4자 정도로서 곧 눈에 띄우지 않는다.

이 건물에 가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들 사이에 수평 과일의 P.C.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색채의 변화일 것이다. 즉 도리보의 색은 백색이며, 비구조적인 하벽

의 P.C.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장식상의 이유인지 정신적인 이유인지를 분간할 가치가 있는데 그 까닭은 다만 이것이 합리적 근거에서 질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건축상세 부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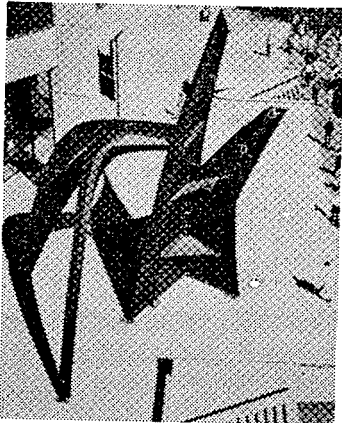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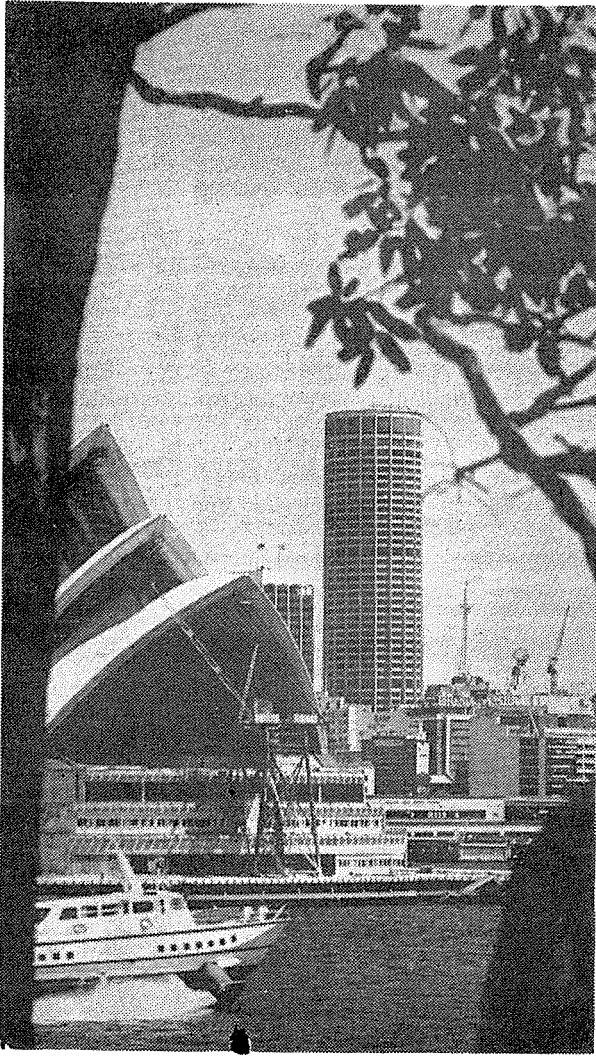
타워 건물이 그렇게도 결함없이 이루어졌고, 쉘스 있고 신뢰감을 주는 까닭으로 그 형태가 원형이라는 것이 더욱 더 의문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형이란 종종 상업상의 속임수의 표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우기 원형타워의 형식상의 합리성이란 대부분 이것이 독립된 요소라는 데 있다.

이 타워는 이 순간에도 시드니시의 스카이라인을 우뚝 내러다 보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시도 고층건물의 경쟁기에 들어섰으며 바로 인접한 오피스 뿌력들이 이 높이를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면의 원형까지도 작가에 의해서 당연한 귀결로 설명되고 있다. 즉 이것은 여러가지로 삭제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태라는 것이다.

첫째, 장방형에서, 다음 정방형으로 또 나아가서 사변으로 높은 정방형으로, 끝내는 원형으로 낙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형이란 그 원이 네모꼴의 외접원인 경우에는 유효 바닥 면적을 넓게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또 어느 형보다도 더 나은 전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축법규상으로 보아 각 인접지 경계선에서 부터 이 건물에 향하여 원형의 각절에 이르도록 건축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므로 타워 건물은 믿음직하고, 자신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 방사선은 광장에 걸쳐서 뻗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심지어 광장 위의 식수장이나 광장에 놓여진 벤취에 이르기까지 원형의 반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접한 조화도 갑자기 13층 오피스 뿌럭에 이르러 멈추고 말게 되는데, 이 건물은 나머지 요소 즉 건물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굉장한 햇볕막이를 전면에 가지고 있으며, 또 외관 색채에서도 판이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통일성의 결여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상극적인 요소의 결합은 아니다.

오스트레리아 광장의 부조화음은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것은 사랑과 넉넉함으로서 소개된 예술 바로 그것이며 그러나 일면 작은 불행이라고 할 것이다.

Le Corbusier와 Vasarely에 의해서 제작된 색무늬의 벽거리 용단이 에레베이터, 러비의 두 줄로 된 에레베이터열의 문 위에 마치 개의 귀가 늘어진 양 걸려 있다.

이들은 트라바친 매리석을 배경으로 행복치 못한 듯 임시로 걸려있는 듯하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들이 끝내는 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이유는 이들이 건물에 아무 것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해서 큰 부속물로서 움직일 수 없겠음 영구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38자 높이의 Calder의 철조각으로서 이것은 타워의 발끝에 발붙일 곳을 겨우 작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Calder는 형태와 상상력의 마스터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은 오래된 철판조각들을 닥치는대로 겹치고 용접하고 혹은 스파이크로 되갸금 두들겨 마춘 것인데, 결국 전체적으로 상극성을 띄운 것이나, 흠 없고, 건물 자체에서 사용된 합리적인 존중된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일종의 지적(智的)인 투대접을 한 듯한 느낌이 난다. 이 철조각은 오스트레리아 광장의 건축적 오아시스 밖의 거리의 네온 사인의 폐물과 같이 조화 안되는 듯이 보이고 있다.

(본협회 편찬위원)